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 검찰개혁 제도화 '고삐'

이낙연 "당내 특위 중심으로 추진할 것" · 김태년 "공수처 위법 상태" 연태영 "법원,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 처분... 결코 동의 못해"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임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찰개혁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서 거리를 뒀으나, 법원이 인용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 정지가 윤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 등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는 당내 기존 권력기관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다"며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부패 없는 청렴 사회를 구현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며 "법 시행일 반년이 가까이 지났음에도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 위법 상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후 추천 의결이 마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연태영 최고위원은 "지난주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결코 동의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검찰개혁은 사람이 아닌 제도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 이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겸손히 사과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등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었다"며 "오히려 헌법 정신을 운하며 오만함의 끝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정지 가져온 신청이 인용됐지만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검찰 스스로 진상 규명을 할지 모르겠다. 공수처가 출범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갈등으로 비치는 데에는 정부·여당이 그 필요성과 진의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

리지 못한 잘못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투명성과 신뢰를 동력으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는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임명했다.

위원에는 백해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현·신동근·최기상 등 법사위원들과 이수진·이탄희·김승원·오기형·김희재 등 울산 출신을 대거 배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김영배 정무실장과 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의원도 포함됐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했다.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에는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정됐다.

김 선임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뉴스

'전북도의회 2020 겨울호' 발간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의정활동 소식을 담은 '전북도의회 2020겨울호(제73호)'가 발간됐다.

제73호에는 송지용 의장의 신년사와 함께 상임위원회별 2021년 의정활동 계획이 소개됐다.

송 의장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며 "새

해 전북도의회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뉴노멀을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도 "포스트코로나시대 도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2020년 의정활동도 정리됐다.

도의회는 2020년 한 해 도민건강권 확보와 생활안전망구축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8월 수해 피해조사와 원인 규명활동을 벌여 정부대책마련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린 제377회 정례회에서 이뤄진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심의내용도 자세하게 다뤘다. /유호상 기자

전주역 KTX 증편 확정 "시민들과 약속 지켰다"

민주 김운덕 의원, 국회 입성 6개월 만에 2회로 결정 내년 1월 5일부터 추가 운행

전주역 KTX 증편이 확정돼 오는 2021년 1월 5일부터 추가 운행을 시작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운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28일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라선 증편과 수서발 전라선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코레일 사장 등과 협의를 거쳐 '전주역을 정차하는 KTX 일일 2회 증편 운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라선 최대 규모 도시 전주의 열차 이용객은 일평균 4,987명(주



중 4,079명, 주말 6,200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주중 28회, 주말 34회 정차에 그쳐 시민들로부터 증편 요구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전라선 증편 문제가 지지부진해왔으며, 이번에 김운덕 의원이 국회 입성 6개월 만에 성과를 이뤄내 주목을 끌고 있다.

김운덕 의원은 "서울과 전주 간의 접근성을 높여 불편을 줄이겠다는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하면서 "전라선 증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더 많은 증편과 함께 수서발 전라선 개통을 반드시 이뤄내 전주 시민들이 서울로 가는 길을 편히 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소식



최용철 · 김동현 · 강승원 전주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전주시의회 최용철(풍남, 노송, 인후 3동), 김동현(삼천1·2·3동), 강승원(덕진, 팔복, 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이 28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받았다.

의원들은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관련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돼 이번 수상 영광을 안았다. /김윤상 기자

이복형 · 고경운 · 이도형 정읍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이복형·고경운·이도형 의원이 전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에서 선정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며 행복한 정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정을=김대환 기자

채영병 전주시의원 '감사패'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호자4·5동)이 최근 주택관리공단 전주지사(지사장 장호흥)로부터 공단발전 및 공동체 주거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공단은 채 의원이 평소 공단의 관리업무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 협조했으며, 특히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등 단지 발전과 공동체 주거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민주 전북도당 공천관리위 예비후보자 검증

내년 4월 7일 실시 김제 나선거구 시의원 재보궐 관련 김승일 · 왕창모 · 최정의 · 홍성학 후보자 1차로 선출 2차 예비후보자 공모는 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는 지난 24일 오전 도당 회의실에서 제2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김제시 나 선거구) 후보자를 검증하고, 김승일, 왕창모, 최정의, 홍성학 후보(가나다 순)에게 관할선거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했다.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당적보유 여부', '학력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등의 심사기준에 대해 '당 관련활동 내용,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 및 수상경력, 징계 경력' 등을 꼼꼼히

심사했다.

이재운 공천관리위원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관할선거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당원은 반드시 전북도당의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받아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4명의 예비후보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천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5일간) 2차 예비후보자 공모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謹賀新年 <근하신년>

Paper Road!

전주페이퍼가 종이의 세계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종이시장의 중심이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종합제지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

